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무'... 전국 유일

첫 확진 군인 어제 퇴원... 확진자 전원 일상 복귀 지난 4일 네번째 발병 이후 19일동안 확진자 없어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이 모두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은 23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국내 139번)인 현역 군인 A씨(상병)가 완치돼 이날 오전 11시 퇴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2일 만으로,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두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동감시(하루 2차례씩 전화 통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를 받는다.

A씨는 도내에서 가장 격리 기간이 길었던 환자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7차례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을 수차례 오가 다른 환자보다 격리 기간이 길었다.

김영리 제주대학교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는 "A씨는 (코를 통한) 상기도 검사에서 3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은 적도 있지만, (목을 통한) 하기도 검사에서는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 나타났다"면서 "의료진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실시하는 상기도 검사와 달리, 하기도 검사는 환자가 스스로 받아 제출한 객담(가래)을 갖고 실시하는 데, 이 과정에서 객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23일 마지막 남은 환자를 퇴원시킨 뒤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이 아닌 침을 뱉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 네 번째 확진자(국내 5534번)는 지난 21일, 세 번째(국내 4345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각각 완치돼 퇴원했으며, 도내 두 번째(국내 222번) 확진자는 지난 7일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됐다. 이들은 모두 대구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도민 또는 여행객이었다. 이로써 제주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인 지역이 됐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는 공·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는 봉쇄 전략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저지하는 2가지 방역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서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19일간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 코로나19 검사 지원대상 확대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14일 이내 해외방문자 증상없어도 검사 가능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검사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는 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등이다. 대상자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보건소 방문시 여권 및 신분증과 해외방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숙박영수증)를 지참해야 한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도 모

든 신규 입원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 입원이 가능하다.

기존 14일 이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 그대로 검사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받아 제주에 입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2주간 자율 관리'를 진행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한 상황이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2236명으로, 중국인이 90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569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특별입도절차를 적용 받는 유학생은 22일 기준 103명으로, 이들은 제주에 입도하기 전 ▷건강기초조사서 작성표 기입 ▷코로나19 검사 안내문 배부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입도 이후 2주간 하루 2차례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검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서귀포 발달장애인센터 건립 계획 축소

부지 9570㎡ 가운데 1650㎡ 매입 대상서 제외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상태로 진행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관 관련 TF팀 회의에서 계획된 부지 9570㎡ 가운데 1650㎡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는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일대 9570㎡ 부지에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지상 3층(연면적 2500㎡)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장애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비 95억원 가운데 공사비는 61억5000만원, 보상비 30억원, 용역비 3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전체 부지 가운데 1650㎡

에 달하는 면적에 묘지가 위치, 이장 문제 등으로 매입에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 지난 20일 TF팀 회의에서는 사업 부지를 이전하는 방향도 검토됐지만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은 묘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TF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묘지 이장 문제 해결에 대한 실패를 찾지 못하면서 해당 부지를 뺀 상태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발달장애인 학부모들도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아라동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남쪽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680㎡) 규모의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60대 남 벌금 500만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18일 미성년자인 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줄테니 무인모텔에 가자"며 성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둘레길서 길 잃은 2명 구조

지난 22일 오후 4시49분쯤 한라산 둘레길을 걷던 김모(75)씨 등 2명이 길을 잃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귀포소방서는 구조대를 투입해 오후 8시36분쯤 이들을 찾아 둘레길 입구로 안내했다. 서귀포소방서는 구조된 2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대정해상풍력발전을 놓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찬성(왼쪽)측과 반대(오른쪽)측이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찬반집회를 가졌다.

대정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심화

지역주민들 어제 도의회 앞서 찬·반 집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사업으로 인해 마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지 않아 강정마을, 제주 제2공항과 같은 주민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활동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시범지구 지정 사

업으로 인해 모슬포항 확장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인근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 피해 증가로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맞은 편에서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찬성하는 대정읍 주민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8년 동안 기다렸다 이번에는 동의하라', '진환경인 해상풍력 동일리는 환영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김현석기자

"학생인권 조례 제정해야"

제주청소년인권지네트워킹은 23일 성명을 발표해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각한 비인권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로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 큰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로 존엄하게 구성할 수 있게 교육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며 그 첫걸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며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감귤 신제품 분양

유리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허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망 일만일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배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형(무독) · 천혜형(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생 유리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영굴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은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서귀포시정 소식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3. 19 ~ 4. 8
- 열람대상
 - 2020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안)
 - 2020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
- 열람방법 :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 개별주택가격(안) :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 ☞ 공동주택가격(안)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일사편리)으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760-2353~2355, 읍·면·동 주민센터

2020 시민음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알림

- 접수기간 : 2020. 3. 23(월) ~ 3. 31(화)
-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모집대상 : 서귀포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 모집분야
 - 관악분야 :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타악기, 트럼펫, 오보에, 바순, 하프
 - 합창분야 : 앙상블 · 합창, 성악 마스터클래스
- 찾아가는 아카데미 : 서귀포 내 관악 · 합창단체 감사과건 후 읍·면·동 주민센터
- 운영기간 : 2020년 4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서귀포예술단 사무국(서귀포울림리기념국민생활관 3층)
 - 이메일(seogwipomusic@naver.com) 접수
- 문의처 : 서귀포예술단 ☎ 739-7394(관악단), 739-5272(합창단)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760-2482

주간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봄 비료 주기 3월 상순-중순
 - 풍작 예상 감귤원: 전정시기를 앞당겨 2월 하순-3월 상순 실시
 - 전체 전정량의 20-30% 절단전정 위주 강전정 실시
- 흉작 예상 감귤원: 4월 상순 이후 꽃봉오리 발생 상황 보면서 실시
- 가벼운 수확전정, 과경지 처리로 충실한 결과모지 확보
- 만감류: 정지 · 전정 및 저온피해 예방
 - 정지 · 전정: 2월 하순-3월 중순, 가운재배는 가운 7월전 완료
 - 온도관리: 발아가 시작되기 전 저온피해 예방 관리(2℃)
 - 비가림재배 자연온도 관리와 조기발아 되지 않도록 관수 중단
- 마늘, 양파, 쪽파: 노균병, 흑색썩음균핵병, 무름병 등 병해충 방제
 - 온도 높고 후반 비 날씨 예방이 병해 사전예방 약제살포와 물도랑 정비 등 배수개선 작업
 - 구쪽파, 만생양파는 노균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방제 실시
 - 구쪽파는 칼슘 함유된 제4종독비 살포 웃자람 방지
- 감 자
 - 품감자 새순이 나오는 포장은 비닐 구멍 뚫기 작업 실시
 - 서리 및 바람으로 잎 피해가 발생한 포장은 생육촉진을 위한 요소 0.2%액 또는 제4종독비(질소 함유) 연염살포
- 단옥수수, 단호박 터널재배
 - 단옥수수 정식: 3월 상순-중순, 본엽 3-4매
 - 밀거름: 퇴비 1,500, 요소 30, 용성인비 30, 염화加里 30/10a
 - 단호박 정식: 3월 중순-하순, 본엽 4-5매
 - 밀거름: 퇴비 1,500, 요소 37, 용성인비 75, 염화加里 34/10a
- 고구마 육묘: 3월 중순
 - 육묘일수: 노지비닐방상 50-60일, 하우스 전열온상 30일
 - 초기온도 30-33℃, 싹튼 후(2-3주) 25℃ 내외
- 시설채소: 햇빛곰팡이병, 흰가루병, 균핵병 등 병해충 방제
 - 낮에 환기로 과습 및 고온상태 예방, 안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760-7561)